

# 東大新聞

발행 주 편집 주 편집	인간 간담 담담	이 심 심	지 재 재	관 공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과 년 월 일	과 년 월 일	과 년 월 일	과 년 월 일	과 년 월 일
과 년 월 일	과 년 월 일	과 년 월 일	과 년 월 일	과 년 월 일

제 1026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0  
1955.10.13 제 3 등우번호(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89년(단기4322년)8월30일(수요일) [1]

## 문교부서 특별종합감사 실시

### 갖가지 의혹... 결과따라 학자투 "변수" 직접적인 학원자율성 침해우려 표출

본교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한 지 22일째인 오는 31일까지 열흘간 문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학자투의 실을 본부로서 실시되는 이번감사는 첫 날인 지난 22일 본부 및 교육방송국 등 대학언론사를 필두로 실시됐는데 그 목적 자체가 갖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 있어 문교부의 역사화장을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본교의 경우 지난해 「3자연석회의」, 「교과과정위원회」 등 학생들의 학교행정에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교부의 압력수단이 강구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다가올 「민주적 총장선출」에 있어 학내·외의 세력들이 주도권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단자선출제가 잇따라 사회문제와 되고 부정입학 관련 소문도 파리를 불고 있다.

이번 감사는 13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를 감사대상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내각총리청장사 부가 본교 및 고려대, 한양대, 명지대, 한신대, 영남대 등 대학입시부정과 관련하여 지목된 사립대학의 입시부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의 공명론은 학원자주화투쟁이 전개되고

## 석·박사 1백76명 배출

### 지난 26일 후기대학원 학위수여식 마쳐

「1988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 수여식」이 지난 26일 오전 11시 李鶴冠총장, 黃鍾經이사장, 졸업생 및 학부모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있었다.



◇88년도 후기 석·박사학위 수여식이 지난 26일 오전 11시 李鶴冠총장, 黃鍾經이사장, 졸업생, 학부모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열렸다.

## 제27회 學術賞 논문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무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매년 말한수학을 거둬올 본교 學術賞이 傳統과 權威의 연을 쌓으며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학술상에 동국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분야**
  - 人文科學賞
  - 社會科學賞
  - 自然科學賞
- 응모요령**
  - 원고매수=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60매)내외로 지도교수의 추천 및 소속학과 학술논문이어야함
  - 응모자격=서울 및 경기권에서 재학생에 한함
  - 심사위원=본학에서 위촉하여 당선작 발표와 함께 공모시 상·상장 및 상금 (본야별 당선작 20만원·가작 15만원)
  - 제출기간=10월 2일부터 6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 당선발표=10월 18일 本紙紙上


동대신문사

## 宋堯仁·金昌熙 교수 별세

문과대 宋堯仁(영문과) 교수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신대문로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7세. 충남 청양에서 출생한 宋堯仁



故 宋堯仁 교수



故 金昌熙 교수

교수는 1960년 본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75년에는 본교에서 영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8년 2월부터 본교에 재직해온 宋堯仁은

## 등록률 57%

31일까지 추가 마감

지난 25일 1차 마감된 2학기 등록은 총등록예정자 1만 6천 4백 12명 중 57%인 9천 2백 70명이 등록,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학교당국에서는 지난 28일부터 하교(31일)까지를 연장등록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조중·국민은행 전국각지점에서 등록을 받고 있다.

## 처·과장회 결성

나연표씨 회장 선출

본교 직원노조(위원장=李連浩)에 가입하지 못한 과장급이상 직원모임인 처·과장회가 지난 7월 7일 동국관(L101)에서 결성됐다. 서울·경주 처·과장급 3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날 결성회에서 발기취직문을 통해 「본교의 보다 차원있는 발전을 위해 직원노조와는 별도로 처·과장회를 창립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직원노조, 학교, 학생회, 교수회와도 긴밀한 互助체제를 형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회장으로는 나연표 학

## 경주 6대 총학생회 출범

### 단대·대의원·여학생회·동연등 연합으로

경주캠퍼스 제 6대 총학생회(회장=이종현·국문 4)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총학생회 선포주간」으로 설정, 오는 6일 오후 1시 대의원회·여학생회·동아리연합회 등과 연합총회를 열어 출범식을 갖는다.

첫날인 오는 4일 12시 「민주총장 모의선거 유세」가 중앙에서 열리는데 필두로 오후 1시에는 「통일방안 비교분석」을 김낙중(교리대) 교수 초청 강연으로 원효관 소강당에서 가지며 모의총장 투표도 실시된다.

한편 새로 출범한 제 6대 총학생회 집행부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10명은 △총무부장=이상근(경계 4) △기획부장=이성규(교리사 3) △사외부장=하창욱(영문 3) △학술부장=이선우(무역 3) △홍보부장=박경혜(영문 3) △문화부장=이태용(경계 4) △총교부장=진병길(국사 4) △학자투위원장=김홍식(국문 4) △신문편집부장=이병희(법학 2) △학생복지위원장=김동환(중문 4) △취업대책위원장=김병호(경계 4) 순 등이다.

- ### 本 社 辭 令
- △서울캠퍼스
    - 任 取材 部長 李萬燮(법과대 인철 2)
    - 任 學術 部長 李修符(사외대 사회 2)
    - 任 編輯 部長 朴英德(사법대 국교 2)
    - 任 論說 部長 徐昌熙(사회대 정치 2)
    - 任 文化 部長 徐昌熙(사회대 정치 2)
    - 任 特稿 部長 金英珍(상경대 경영 2)
  - △경주캠퍼스
    - 任 取材 部長 鄭慶燾(인문대 국문 2)
    - 任 學術 部長 吳成律(인문대 일본 2)
    - 任 編輯 部長 金英珍(상경대 경영 2)
- 이강 8월 30일자

## 교수 동정

▲林虎一(독문학과) 교수=이선우와 신대원 교원교수로 1년간 체류기 위해 오는 1일 출국.

▲白承燾(중문학과) 교수=내년 8월 19일까지 학술조사

## 변수

변수의 말씀이다. 「전 정에서 수천의 죄과를 물으려 싸우기보다 하 나의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는 참으로 으뜸가는 용사」라고 하였다. 사실 사람은 무수한 날과, 이길려는 모든 싸움을 한다. 남을 이기는 것은 싸움을 하지만 자기를 이기는 것은 승화가 되는 것이다. 승화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승화하는 정신적 좌와 작용이 앞서 있어야 한다. 자기에게 투한 착한 세 포가 한곳으로 집적되어 그것이 힘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착한 세 포의 힘은 정의를 실현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기가 능력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착한 세 포를 찾아나서는 선기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선기는 자기극복의 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睦 植 培

## 테크노피아를 향한 최첨단 기술

### 人間·技術·未來

# GoldStar

## 최적의 16비트 교육용 컴퓨터 — 금성 PC파트너

“파트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40만 원대

한글/한자 CGA방식을 채택, 한글, 한자에서 칼라그래픽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금성 PC파트너/국내 처음으로 50여개의 부품과 기능을 하나의 집으로 통합한 한글·한자 칼라 그래픽(HCGA) 보드의 개발에 성공한 금성이 40만 원대 혁신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10MHz의 16비트 교육용 컴퓨터 금성 PC 파트너

512KB의 주기억장치  
완성형 한글/한자 CGA카드 내장(ASIC)  
풍부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원치한 종질보 증 및 이프터서비스  
\*금성 교육용 16비트 컴퓨터(모든 방에)  
\*GMC-6805C: W495,000(1FDD)  
\*GMC-6815C: W550,000(2FDD)  
(이상 권장소비자가격) VAT포함

###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 컴퓨터

## 금성사

전국 금성컴퓨터유통점

- 서울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부산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대구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인천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대전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충주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청주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포항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울산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경주시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경북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충청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전라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 제주지점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주) 금성컴퓨터(주) 2589-0186





지난 1학기 본보에서는 「한국전쟁 그기원을 찾아서」라는 제하의 학술기획을 7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연재를 통해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정립에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한국전쟁 자체에 대한 설명은 미비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전쟁과정상에 나타난 통제제를 보충으로 게재하기로 하였다. 한국전쟁이 분단고착화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나 만큼 이전과정에 참여한 제세력의 이해관계와 전쟁의 성격등을 올바르게 이해할때 민족의 통일은 가까워질 것이다. <편집자주>

### I. 들어가는 말

1945년의 8월은 우리민족에게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로부터 44년째인 89년의 8월이 그 때와 어떠한 질적인 변화없이 쓰러지고 있다. 최근 몇년전부터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있는 부분은 분단의 근원과 그 모순의 절정이었던 한국전쟁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대중적 확산이 만족할 만큼 이뤄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구체적, 역사적 연구가 시기상에서부터 분단부터 전쟁과정까지의 상황인식에만 치우친 점이 있는 듯하다. 물론 한국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내기 위해서는 전쟁의 역사적 필연성과 그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인식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직접적인 전쟁의 전개과정을 연구해야 한다. 바로 전쟁과정에서 전쟁의 주체, 성격, 각 세력들의 이해와 요구들이 더욱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의 확대와 심화에 일조하고자 전쟁발발직후부터 중국군의 개입까지를 살펴보겠다.

### II. 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개입

한국전쟁에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는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뼈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는 전쟁의 주체, 성격, 각 세력들의 이해와 요구들이 더욱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의 확대와 심화에 일조하고자 전쟁발발직후부터 중국군의 개입까지를 살펴보겠다.

이런 금작스런 북한군의 진격을 기습납치의 근거로 주장된다. 그러나 이는 많은 의혹이 있다. 미군은 한국군을 아시아의 최고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그 2/3가 한강이북에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군의 주력이 여전히 한강이북에 머물고 있었고 대부분의 중화기나 장비, 보급품도 역시 운송되지 않은 채 28일 새벽 2시에 취해진 한강교 폭파사건에 의문이 있다.

북한군의 주력이 서울 시내 중심부에 들어 온 것이 28일 오후 3시경인 점을 볼때 한국군의 병력과 군사장비의 결정적 약화를 초래하고한 한강교의 성급한 폭파는 통상적인 군사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특히 문제의 사건은 남쪽에서 의도적으로

# 미국의 참전은 유엔헌장에 위반



국무장관 애치슨이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고 지시한다. ①미 민간인들의 한국에서의 철수 문제 ②백악관 사령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 군사요원단이 요청하는 군정지급 ③한국내의 모든 작전지휘권은 백악관에 있다. ④UN의 뒷받침이래 백악관은 7월대를 포함한 그이후 모든 병력을 사용한다.

이와 함께 미국시간으로 25일

에 의한남침이라고 배운 우리에겐 매우 당혹스런부본이라하겠다. 우리가 배운 것이 사실이라면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은 UN안보리에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 III. 미-이승만의 반 민족행위

또한 이 와중에 미국의 전쟁

이 결정에 따라 미국은 UN사령부산하에 UN군 인사처를 두고 그 산하기관을 서울, 인천, 부산등 주요도시와 작전기구에 설치했다. 이에 의해 산업운동에도 식량에 관한문제, 교육문화에 대한 감독, 심지어 거주이동과 신분 이동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권을 직접 행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다



1950년 7월 30일 전선에 참가기 위해 부산에 상륙한 미군

## 한강교 폭파사건등 의문 계속 남아 소련 사주 의한 남침설 설득력 부족

열하게 공격을 받았다. 흔히 이런 금작스런 북한군의 진격을 기습납치의 근거로 주장된다. 그러나 이는 많은 의혹이 있다. 미군은 한국군을 아시아의 최고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그 2/3가 한강이북에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군의 주력이 여전히 한강이북에 머물고 있었고 대부분의 중화기나 장비, 보급품도 역시 운송되지 않은 채 28일 새벽 2시에 취해진 한강교 폭파사건에 의문이 있다.

북한군의 주력이 서울 시내 중심부에 들어 온 것이 28일 오후 3시경인 점을 볼때 한국군의 병력과 군사장비의 결정적 약화를 초래하고한 한강교의 성급한 폭파는 통상적인 군사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특히 문제의 사건은 남쪽에서 의도적으로

개입의도에 부합되는 조치가 미국과 이승만정권 사이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이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였나를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50년 7월 이루어진 이른바 대전협정을 비롯한 일련의 한-미간의 밀약 및 협정이다.

이러하여 한국전쟁과정중에 이미 미국은 한국전쟁의 한방사로서 최고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었고 남한은 극단 통수권과 사법권등 핵심적인 주권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넘겨줌으로써 스스로 독립국가로서의 존립근거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들의 반행은 단지 주권침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북한통포 뿐 아니라 남한 통포에 대한 약탈과 강간, 2차대전보다 더 많은 폭탄을 투하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일반학우 등 전공자의 총합과 참여우도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상징탈권립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홍보활동 또한 중요한 일이다. 상징탈권립은 단순한 학술을 떠나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전공자의 총합속에서 동국인의 정신과 노력이 깃든 동국의 위상을정립한다는 차원으로 승화시켜 고집적인 무관심과 방관자적인 동국인들을 재인식 시켜야할 중요한 부분이다.

### 상징물 건립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홍학성 회장·이종현국문 4)는 여러차례의 연석회의 결과 「참동포교리상」으로 상징탈을 결정하고 총 1억원의 건립기금목표(중 학생40%, 교수·교직원·동문30%, 학교당국3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며 지금까지 총 2백98만 1천 5백 원이 확보 계속중임중이다.)

이런 상징탈건립은 「동국의 구심점은 상징탈건립으로」 「상징탈 건립하여 동국위상정립하자」라는 기치아래 일만은발인의 지대한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상징탈건립의 모든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1인당 3천원씩 징수와 학생자치기구 장학금 10%를 상징탈기금으로 공제한다는 안건들이 일부학생들로부터 반발이 일고있다.

이런 상징탈건립은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동국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일반학우들의 재인식과 함께 자발적참여, 교수·교직원·동문들의 대폭적인 지원과 참여에서 학교당국의 지원은 단조롭게 일차원적이거나 시작의 커다란 기대에 부응하는 동구사미적의 일은 안될것이다.

이런 상징탈건립은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동국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일반학우들의 재인식과 함께 자발적참여, 교수·교직원·동문들의 대폭적인 지원과 참여에서 학교당국의 지원은 단조롭게 일차원적이거나 시작의 커다란 기대에 부응하는 동구사미적의 일은 안될것이다.

이런 상징탈건립은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동국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일반학우들의 재인식과 함께 자발적참여, 교수·교직원·동문들의 대폭적인 지원과 참여에서 학교당국의 지원은 단조롭게 일차원적이거나 시작의 커다란 기대에 부응하는 동구사미적의 일은 안될것이다.

## 동양은 세계로, 미래로 활짝 열려있는 문입니다.

동양은 지난해 뻗어나는 회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전 임직원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새로운 심볼마크를 제정하고 기업슬로건을 "세계로, 미래로"로 확정 했습니다. 여기에는 내실과 신뢰를 존중하고 이를 다져온 동양이 이제는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용비의 날개를 펴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업의 발전에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자발성과 창의력은 자신이 기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과 책임, 그리고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분위기에서 우러나옵니다.

동양은 쾌거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마음껏 뜻과 기량을 펼 수 있는 넓고 밝은 마당입니다.

세계와 미래로 활짝 열려있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 동양시멘트

가족회사 : 동양제과·동양증권·동양생명보험·오리온프리트레이·동양유업·동양투자자산·동양창업투자·동양경제연구소

# 토지공개념

-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
- ...나인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중 하나...
- ...장 삼각한 것이 봉건적인 대토지의 소유...
- ...이다. 즉 전국사유지의 65·2%가 소수...
- ...수준상위 5%에 편중돼있는 실정에서 토...
- ...지가적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
- ...으며 대토지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은 경제...
- ...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있다. 이...
- ...글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
- ...고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
-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
- ...보고자한다. <편집자주>...



◇과다한 토지소유를 부추기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서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 힘찬 함성만이 생취의 길

흔히 토지공개념 도입을 제 2의 농지개혁이라고 말한다. 실로 정곡을 찌른 말이다. 만약 49년에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6·25사변이 터졌을 때 농촌지역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토지개혁과 관련된 일대 개혁을 이번 기회에 단행하지 않는다면 일조유사시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꾸로 돌지도 모른다. 몇 안되는 사람들이 거대한 땅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 현상은 이처럼 큰 격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 기획논단



洪 思 德 <정치평론가>

리현상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월급쟁이가 국민주머니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0년대와 90년대에서 최근 16년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불공평생활자와 부유층 가격의

침수 있고 또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우리가 본받을만한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공개념제도는 말은 간단하지만 실로 여러개의 기둥위에 세워진 구조물이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는 기둥과, 필요하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결국 손해를 보게 시리 만드는 기둥들을 매우 정교하게 엮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순부총리가 내놓은 법안 및 법개정안만 봐도 7가지가 넘는 것은 이것

## 자본주의 모순인식... 선진국 이미 백년전 시행

### 회피하면 서민들이 총 거꾸로 들수도 있어

## 「또다른 부자」야당역할 두고 불일

경주에서 어느쪽이 거북이고 어느쪽이 토끼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사실 땅을 사두는 게 제일 좋은 돈벌이 수단이라는 얘기는 월급쟁이들이 아무리 알뜰하게 저축해도 땅값의 팽창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땅을 팔아 일하는 사람들이 아담바탕하면서 훈훈이 보아 왔다 사나와 끝포장을 오라기라하는 밤부자에게 짓눌려 허리란번 제대로 퍼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땅소유 실태는 제일 잘사는 사람 5%가 전체 사유지의 65%를

경주에서 어느쪽이 거북이고 어느쪽이 토끼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사실 땅을 사두는 게 제일 좋은 돈벌이 수단이라는 얘기는 월급쟁이들이 아무리 알뜰하게 저축해도 땅값의 팽창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땅을 팔아 일하는 사람들이 아담바탕하면서 훈훈이 보아 왔다 사나와 끝포장을 오라기라하는 밤부자에게 짓눌려 허리란번 제대로 퍼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땅소유 실태는 제일 잘사는 사람 5%가 전체 사유지의 65%를

경주에서 어느쪽이 거북이고 어느쪽이 토끼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사실 땅을 사두는 게 제일 좋은 돈벌이 수단이라는 얘기는 월급쟁이들이 아무리 알뜰하게 저축해도 땅값의 팽창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땅을 팔아 일하는 사람들이 아담바탕하면서 훈훈이 보아 왔다 사나와 끝포장을 오라기라하는 밤부자에게 짓눌려 허리란번 제대로 퍼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땅소유 실태는 제일 잘사는 사람 5%가 전체 사유지의 65%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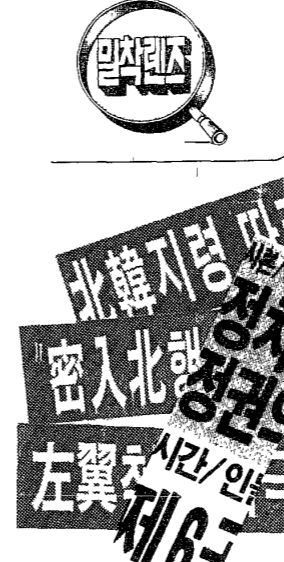
경주에서 어느쪽이 거북이고 어느쪽이 토끼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사실 땅을 사두는 게 제일 좋은 돈벌이 수단이라는 얘기는 월급쟁이들이 아무리 알뜰하게 저축해도 땅값의 팽창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땅을 팔아 일하는 사람들이 아담바탕하면서 훈훈이 보아 왔다 사나와 끝포장을 오라기라하는 밤부자에게 짓눌려 허리란번 제대로 퍼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땅소유 실태는 제일 잘사는 사람 5%가 전체 사유지의 65%를

경주에서 어느쪽이 거북이고 어느쪽이 토끼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사실 땅을 사두는 게 제일 좋은 돈벌이 수단이라는 얘기는 월급쟁이들이 아무리 알뜰하게 저축해도 땅값의 팽창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땅을 팔아 일하는 사람들이 아담바탕하면서 훈훈이 보아 왔다 사나와 끝포장을 오라기라하는 밤부자에게 짓눌려 허리란번 제대로 퍼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땅소유 실태는 제일 잘사는 사람 5%가 전체 사유지의 65%를

요즘은 도대체 믿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요즘애기가 아니다. 우리는 8·15이후 세워진 역대정권에 의해 44년을 고스란히 속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3월인가 모 길간지에 어이없게도 「이수근 간첩사건」이 조작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움이라기보다 분노와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고 「역시...」라는 허탈감을 가슴깊이 암금처럼 남겨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사에 대한 사후처리는 「명백한 재수사」라는 방항으로 아니라 그들(북쪽정 지배집단) 특유의 호도방식에 의해 호처부지되었다. 다른 길간지를 통해 당시 이수근사건의 또다른 관련자들을 내세워 아니라고 호통을 치며 인상을 쓰고 나온 것과 함께 그 「충격의 사건」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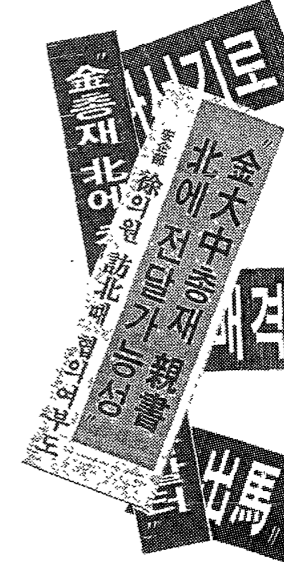
우리는 분명 지난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수없이 많았던 간첩사건 대검찰사 시국학생조직사건들... 그것 모두가 조작은 아니었을까. 오랜시간동안 우리는 얼마나 큰계급이었는가. 「이수근」은 간첩의 대명사요, 「북과

해, 명증한 근거에 의해 폭로된 자유당과 한민당이라는 거짓야당세력이 합작해 「국가보안법 위반」 「미군철수」 「남북통일협상」을 주장했던 선각적 소강국회의원 13명을 제거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우리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그기사에 따르면 1949년의 노일환, 김약수의원들 13인에 대한 「국회프락치사건」은 천안공노할 조작임에 틀림없다. 당시 검찰의 발표는 「전체가 거짓」이며 유일한 증인조자 가공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미대사관의 문정관 한터 손조차 자출한바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른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대사 44년을 지켜보면서 정꾸라 벌이고 언론이 숨을 쉴 틈이 없었다. 조작으로 임팩트 국판을 확인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앞에 예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을 가슴에 꺼내고 살고있다. 가깝게는 우리의 신분법과 학우 수정으로 부터, 서경원의원, 문익환목사 사건으로 부터, 수많은 민주학생, 인사들의 무차별구속과 감금, 고문과 살인으로 부터



## 드러나는 역대정권 사기극... 독재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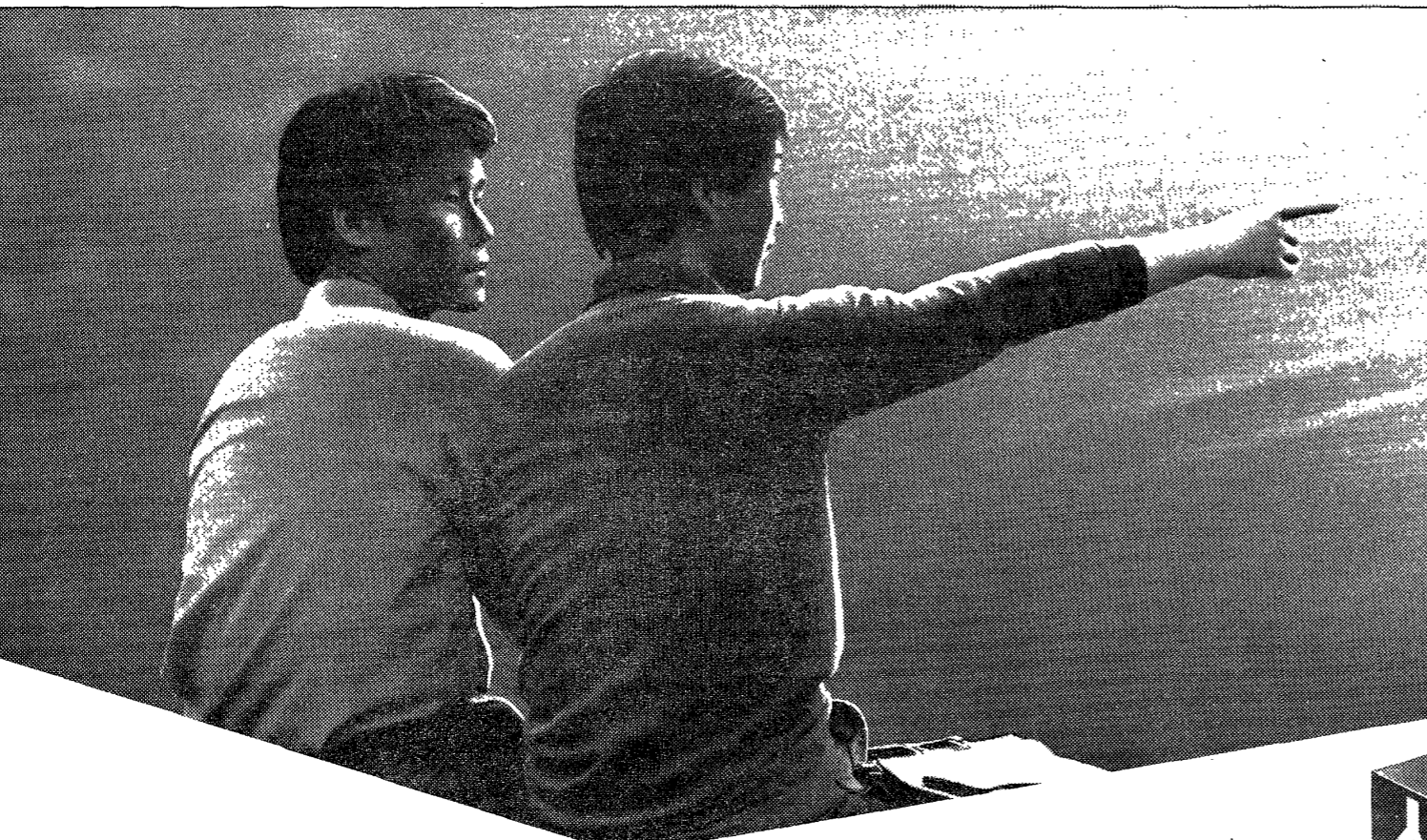
### 국회프락치·이수근사건등 조작사건 진실폭로 잇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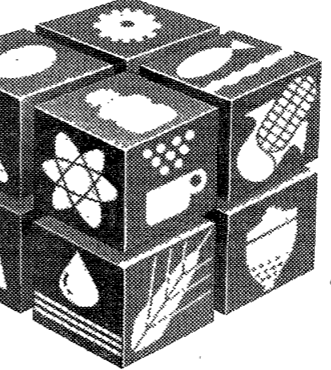
의 죄와야욕」의 상상이 아니었는가. 한때 반국가분자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많은수의 인사가 지금 국회의원 뺨지를 달고 의정단상에서 국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지모른다. 역대 정권이 그렇게 수없이 「빨갱이」로 몰아세웠던, 온 국민이한 때 그렇게 믿었던 「김대중」이라는 인물도 이미 최고야당의 총재로 대통령에 출마해 자기를 「가장민정권의 극악무도함과 반도덕성을 폭로했던」도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른다. 더불어 우리의 수많은 대중이 눈물로 애도했던 「육영수여사」! 살해범 조작설에 와서는 도저히 끊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8월20일주 일요신문을 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신문은 수없이 많은(구체적으로 말하자면 9가지) 명증한 의혹을 제기하며 「문세영」이라는 사람이 결코 「별인물」이 아니며 그 사람의 총에 맞았을 99%의 가능성은 당시 부경의 (서울대신경의과 원로박사)의 「말할수 없다」는 입증표명과 함께 폭

드러나는 역대정권 사기극... 독재의 본질. 국회프락치·이수근사건등 조작사건 진실폭로 잇달아. 44년을 속이는 이겨레, 이제와서 땅을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무조건 툴을떨며 분노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해야할 일은 단지 눈을 크게 뜨고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만이 우리가 속지 않는 길이고 속았던 과거에 대해 보상을 받는 길이며, 속이라는 무리들을 제압하는 길이니가. 명백한 진실규명과 응징만이 역사의 순리가 아니겠는가.

드러나는 역대정권 사기극... 독재의 본질. 국회프락치·이수근사건등 조작사건 진실폭로 잇달아. 44년을 속이는 이겨레, 이제와서 땅을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무조건 툴을떨며 분노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해야할 일은 단지 눈을 크게 뜨고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만이 우리가 속지 않는 길이고 속았던 과거에 대해 보상을 받는 길이며, 속이라는 무리들을 제압하는 길이니가. 명백한 진실규명과 응징만이 역사의 순리가 아니겠는가.



##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인생을 이야기하고 24시간 잠에 취할수 있는 젊은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삼양사가 젊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65년을 이어온 정열과 투지로 식품, 섬유, 기계산업에 건실하게 키워온 삼양사— 이제 새롭게 석유화학,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생분해화학 미래 첨단산업에 진출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물러설 줄 몰라서고 나아가야 할면 과감히 나아가는 진정한 용기를 지녀온 삼양사—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뜨거운 가슴과 진지한 눈빛의 젊은이들처럼 삼양사는 진취적 기상으로 보다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삼양사



# 동국의료원 불교병원 추진중

## 황이사장 병원설립 건립기금·규모 추후발표 기숙사 건립위해 「교환입야」 매각방침

본교 기숙사 건립을 안건으로 한 「재단이사회」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재단이사 9명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의에서는 ▲기숙사 건립관계 ▲기숙사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문제 ▲재단이사회 보선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논의사항으로는 기숙사는 원당에 있는 본교입산농장에 건립하며,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소위원회 (박재근이사

서병권이사·김법정장사)를 구성, 법어사와 교환한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대지 4백73평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의는 차기이사회의에서 건립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재단은 또한 본교 동국의료원 불교병원 건립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廣彬經이사장의 의하면 『양한방 1천병통용수용할 수 있는대지 5천평 규모의 메르드 종합병원 건립계획을 세워 보사부에 승인을 요청, 지난 17일 보사부로부터 「성남시 분당지역 종합병원 개설

사건 승인 신청서 개인 회신」을 받고 구체적인 병원설립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양으로 은 이 공문 내용은 「보사부 훈령 제762호 및 보사부 고시 89-24호의 의료기관 개설 사전승인규정에 의거, 종합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설 용지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건설부에 추진하였다」고 명시하고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신시가지 조성계획과 관련, 이지역에 동국 1백주년 속원사업

인 수도권지역 종합병원건립을 건설부에 요청한 법인사추서는 이번 보사부 회신을 통해 받아들여져 사실상 병원건립에 필요한 사전승인 (가인가급에 해당)을 얻어낸 것으로 앞으로 건설부와 부지선정 및 용지확보 문제만 남겨 놓고 있다.

한편 1천억원 이상의 소요자금이 예상되는 병원건립비에 대해, 황이사장은 「관계부처와 불교병원건립 결정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병원건립기금확보문제 및 병원설립규모를 밝힐 것이며 현재는 구

체적인 방안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편집특강」실시  
주 1회 여학생감실서 여학생감실은 「편집특강」을 오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국원전아카데미 후원으로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실시한다.

여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설되는 이번특강은 매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며 선착순 3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학생감실에서 받으며 교재비는 5천원이다.



지난 28일 오후 4시 학림관소강당에서 열릴예정인 학생대표자회의가 정족수70명에달한 못미치는 27명만이 참석하여 무기연기됐다. 민추총장선출을 2학기 총학생회사 업무 투쟁방향의 모색이 시급한 이때 학생대표자의 이완은 일반학우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있다. <글·사진=지정열기자>

## 도서대출량 7만6천권 1학기 문학·응용과학·사회과학등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의 1학기 도서대출량은 총 7만 6천 5백92권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충살피고 살펴보면 일반대출 2만 2천 5백61권, 참고정간실 1만 7백 6백71권, 과제도서실 5만 1천 3백88권, 불교학자도실 2천 5백99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분류별로는 문학이 지난 88학년도 2학기과 마찬가지로 이번학기에도 1만 4천 9백26권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 1만 2천 7백12권, 응용과학 5천 6백31권, 순수과학 4천 5백60권, 철학 4천 2백11권, 종교 3천 7백68권, 총류 3천 7백87권, 어학 1천 6백22권, 예술 1천 5백 65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과대별로는 여전히 문과대가 1만 3백86권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 1만 2백15권, 사범대 9천 4백97권, 공과대 8천 4백10권의 순이었다.

한편 연이율 총인원은 48만 2천 6백31명이었으며 1일 평균인원인원은 3천 1백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캠퍼스 도서관 (관장 김은희)의 소장도서가 지난 1학기동안 총 7,530권이 늘어났다. 이를 증가시키는 동양사 4, 599권, 서양사 1,559권, 학위논문 1,372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열람실 서가도 지난 8월 21일 총 23개가 증설됐다.

한편 廣彬經 前총장이 지난 8월 25일 고고미술사에 관한 도서 1,300권을 경주중앙도서관에 증정했다.

**본교생 5명연행**  
임수경양 환영관련 서울캠퍼스 정기연(정의3) 운동 학생 5명이 「임수경양 사법처리 반대 및 안기부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난 7월 21일 오후 4시 40분경 안기부 남산분소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서충현 「임수경양 환영단」 소속인 이들은 이날 임수경 양편의와 임수경양 방북활동

## 前경주 총학생회장 김동선군 오는 8일 민정당사 타격관련 공판

경주캠퍼스 제 5대 총학생회장 김동선 (중문 4) 군은 구속중인 5명의 심리공판이 오는 8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린다.

지난 6월 9일과 26일 각각 추가구속된 오승룡 (중문 3) 서종길 (국사 2) 군을 모두 포함

한민정당사 타격관련자들로 구성된 현주조물방화교사, 강양운 (의약 2) 군은 현주조물방화교사 및 미수, 오근, 서군·류창호 (무예 3) 군은 현주조물방화회로 각각 구속됐다.

# 「전일제 수업」 실시 검토

## 야간강좌 3개과 주간통합-전·후기분할등

야간강좌 영문과, 전산과, 산업공학과 등 3개과 오는 90년도부터 주간과 통합되고 전후기분할모집을 실시하게 된다.

문교부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될 이번 통합에 따라 주간 모집인원은 영문과 50명, 전산과 60명, 산업공학과 60명, 각각 늘어난 영문과 1백명, 전산과 1백20명, 산업공

학과 1백명으로 전후기 분할모집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89학년도가 끝나기전인 11월까지 문교부의 결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판명될 이번 조치와 관련, 승인인일 경우 이 3개과는 90학년도에 직장인, 복학생을 위한 전일제 실시의 강화를 개시하게 된다.

**동연 공개토론회 2차는 오는 6일**  
동아리연합회 주최 「제 1차 공개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4시 학생회관 3층 동·연 사무실에서 동아리 8개분과 대표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2차 공개토론회가 오는 6일 오후 5시 학생회관 (2층 학생세미나실)에서 「민주적총장 선거제도 정립 및 동아리 권익 옹호 투쟁에 관하여」란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연대회는 4조로 편성돼 전체회의와 조별토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첫날은 인소식과 조편성이 있은후 학생대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총학생회장 강현우 (중문 4) 군은 「학생대표의 위상을 못해 사립이 일반적 정립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회의의 정례화, 사업내용의 심의등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날은 1학기사업 평가와 평후관련 교양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날은 민주적총장선거를 2학기사업등에 관련 집중토론을 한뒤 학교로 돌아와 마련해선다.

## 단대별 연석회의

교수대의원회 「총장선출제도」 논의  
「민주적 총장선출제도」 확정을 위한 각 단과대학별 교수·학생 연석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 안은 지난 28일 오후 4시 교수회 사무실에서 열린 교수회 (회장=金鶴典)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됐는데 이는 총학의 4자연석회의 (교수, 학생, 직원, 대학원생) 개최요구와 관련, 직원, 대학원생이 배제된 교수·학생만의 총장선출안 마련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관해 전체교수회 金鶴典의장은 「대학은 연구의 장이기 때문에 교수·학생이 학교의 주체이며, 직원 및 원생 참여는 아직 얘기될바 없지만 총장후보자 추천등에 최대한의 의견수렴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학생대표자 수련

총학생회장부등 60명 「학생대표자 하계 수련대회」가 총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낙산사에서 열렸다.

상반기 사업평가와 각종 학생회장들의 통일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

## 「장미의성」 공연

연영과 실습공연  
예술대 연극영화학과 제 2백35회 1학년 실습공연으로 차범석작 「장미의성」이 안대상 (연영) 군의 연출로 오는 31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오후 4시, 7시에 연영과 스튜디오에서 공연된다.

## 통일염원 대장정

대총, 7일간 가제  
총대의원회는 지난날 10일부터 16일까지 「통일염원대장정」을 가졌다.

참가대의원 25명은 10일 일진각에서 출발식을 가진후 백제, 의정부, 청령, 춘천, 양구 등을 거쳐 16일 통일전망대에 도착했으며, 장정기간동안 참여의의와 배경에 대한 토론과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 대장정을 마친 대의원들은 17일 낙산에서 경주캠퍼스대의원을 포함한 2진과 합류, 대의원수련대회를 열고, 1학기사업평가, 대의원회 위상과 역할, 2학기사업방향 등에 관해 토론했다.

## 의료원 기획실장에 宋錫球

林泰平교수등은 학과 소속변경  
총무처에서는 지난 24일宋錫球 동국의료원 기획관리실장 등 8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宋錫球 (의학) 교수—동국의료원 기획관리실장  
▲林泰平—총무처장  
▲申松濤—원전문화대학 교학과장

## 교수대의원회 「합성」 결를 발령했다

「합성」 결를 발령했다  
「합성」 결를 발령했다

**검사 받는 중**  
○... 지난 22일부터 문교부 「총학생회장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온갖 풍문이 무성.  
○... 임수경 양의 불교병원, 기숙사 등의 건립발표까지도 「부동산투기」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과 「부정입학」 여부 확인이 이번 감사의 본래 목적이라는 등의 전언이 유행.

**문교부의 「특별종합감사」... 학자투 와해공작은 아닌지**

하나 신성한 학원에게 중속을 강요하는 문교부는 지금도 학자투 와해공작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중요한 것은 등록발전

○... 「민주」를 열망하는 「바람」이 새학기와 더불어 동학을 휩싸고 도는데...  
2학기에 있을 「민주적 총장선출」 문제를 놓고서 잘못하다가 집안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등이 점점 어수선택지고 사립이 하 수상한 공간

정국에서 그래도 중요한것은 「등록발전」이 아닐런지...  
양심을 찾아가세요  
○... 「도대 체 왜 이러 한 일들이 반 복되는 것이 가! 최소한 신 성이 보장 되어야 하는 대학에서 가

소문으로만 돌리려 했던 본 회전후대수 읍살함을 금할 길 없어 한마디, 「대학인 일, 양심을 지킵시다. 만약 팔았다면 뒤늦습시다」  
도서관의 참고화  
○... 문방을 도서관 열람실이 장기 참고화 될 기미가 엿보인다고.  
도서관의 증가에 따른 시 급한 공간확보는 뛰따르지 못한 반면 도서관도 학생도

### 평소에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한석봉 교훈

자만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남겨준 그 유명한 한석봉의 일화!  
방학을 뜻있게 보낸 사람일수록 이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더위와 싸우며 도서관에서 문학내내 책과 씨름했다고, 토틀 혹은 어학 실력이 조금 늘었다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지마시다. 잠시 방심하는 순간 내가 바로 현대판 한석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 현실주의 바탕의 민족미술 실천

## — 80년대 민족미술 「현실과 발언」 통해 알아본다



현대에 있어 정치와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정치에 밀려서 집권자에게 예술인은 적극적인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적극적인 반대전선활동을 전개하는 것, 이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까지 한국에서 예술인들이 차지하는 현주소였다. 그러나 독재자의 현실주의와 예술의 이상주의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고 예술인들은 독재체제하에서의 생존과 민족·민중의 입장을 대변해야하는 의무를 인지한다.

이의 직접적인 실례가 79년 11월에 발족하게 된 「현실과 발언」이다.

당해 9월 김정연, 임옥상씨등 열악한 시대상황하에서도 그림을 통한 표현을 계획한 인사들은 반기문비도입을 갖고 분열된 미술계의 통합을 시도했다. 임옥상(현재 「현실과 발언」 회장) 씨는 「70년대말까지의 기존 미술현황에 큰 불만과 회의를 품고, 미술교육을 포함한 미술종교의 정화와 미술인들의 올바른 인식양상을 도출해 내기위해 나서게 된 것」이라고 「현실과 발언」의 창립경위를 밝혔다.

미술동인들이 발족하기 전의 기존 미술은 해방후부터 박정희군부에 이르기까지 유행수에 유착했으며, 일부로부터의 진보적인 세력의 유입을 철저히 배제,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는 권력아첨형의 고수였고, 화단에서 역시 예술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자파(自派)의 이권·세력다툼만 집착했다.

이에 대해 「현실과 발언」은 「현실의 의미에 대한 재검토와 미술가의 의식고고, 소외된 인간과 미의 미의 현실에 대한 회상, 발언의 주제와 의미·방식은 무엇이었는가?」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인 작업과 이론을 병행해 공명적 이념형으로 발전할 수 있

는 명제를 세웠다. 또한 「현실과 발언」의 정식 발족은 80년 10월 「동인창립전」을 문예진흥원 미술관에서 개막했으나 군부당국의 압력으로 일부 작품을 철거당하는 등 출발부터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직접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이사진은 미술회관측과 전시운영위에 의해 자행된 미술계내 부차체단합의 오점을 안고있다.

모임의 성격을 극복하고 가장 절실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미술인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실연도 구성원이 너무 방대하고 타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한계점은 여전하다.

민족·민중예술계에서는 80년대의 활동을 서서히 반성하면서 정치발언, 선전선동, 민중으로서의 미술인의 권리확보등이 미진했음을 지적, 90년대에는 이와 같은 오

### “정치발언등 민중성 지닌 미술인의 권리확보 시급”

「현실과 발언」은 수차례의 동인전을 비롯, 문화발에 뒷받침된 주시인들의 분노를 삭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성과는 미술단체운동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룹운동은 통해 연안에 공동대처함과 더불어 민족·민주운동에 편승한 노력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처럼 80년대 미술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현실과 발언」이 올해 발전적 해제를 갖게 됐다.

「현실과 발언」은 창립당시 거의 전무상태였던 민족미술단체를 활성화시켜 85년 11월 13일 미술공예총회와 소집단체들의 결과로 민족미술협의회를 결성시켰으며 작년에도 12월 23일 민족예술총연맹을 이끌어내 발족당시 목표 중 하나였던 미술계의 통합을 해결했다.

또한 구성원 역시 30대후반, 40대가 대부분으로 당사자들의 타 집단에서의 활동으로 「현실과 발언」 내에서 결집력이 주는 등 교사, 화가, 민족운동분야에서 역량을 둔 관계로 오히려 양집단의 병행은 성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동인들은 민비법, 민예총등에 운동의 활성화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체에 즈음해 내년 상반기에 디자인포장센터나 미술회관등의 공개장소에서 통합전시회를 갖을 예정이다.

또한 「현실과 발언」의 뒤를 이어 「현실주의와 민족미술의 실천을 위한 연구회 (이하 현연회)」를 결성해 「현실과 발언」의 개별인

으로 한 비주류 (SK) 세력간에 일진일퇴가 거듭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양대 세력의 갈등의 표면화는 이색의 담내민주화발언에서 비롯되었다. 이색을 중심으로한 반 T K 인사들은 담내민주화를 명분으로 담권참여기회의 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자기 대권경쟁에서 T K의 세습적 승계를 차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T K 측은 이 발언을 구실로 유력한 경쟁상대인 이색과 반 T K 세력들의 활동반경을 위축시키고 이들을 당면에서 배제하고자 즉각 공격적대응포명한다. 역대 독재정권의 후계자의 말로는 그리 온건치 못하다. 그들은 철저히 민중을 위한다는 특색자의 하수인이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권의 싸움을 지켜보는 민중은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전개될까해서 자못 흥미와 호기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장실의 낙서는 대중의 사회심리적 정서와

# 시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내가 사회에 민족에 눈뜨기 시작한 대학 이 학년 여름 유월이면 비맞은 감꽃이 소리없이 지곤하던 고향에 갔습니다

눈치도 없이 엄마의 가슴을 만지작거리기 좋아했던 어릴 적 「엄마야 짚쥬~잉」 때 쓰던 넉넉한 사랑을 주던 가슴은 내 유년시절의 꿈이 자라던 곳이었습니

다 구비구비 새색이를 짓으며 이십리길 리 어가를 끌고 벌교장열 가 채소를 판 돈으로 서울 가야 사람이 된다고 죽고 육학년 때 전학보낸 아홉살이 방학이 되어 내려오면 짝을 깨우고 우시면 어머니, 눈물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

다 그러나 어머니 사촌가가 되어 여드름이 한창이던 내가 버릇을 못 버리고 품속에 파고들면

가실까신한 손으로 머리며 불이며 영 법이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릴 때에야 잠 드시던

향상 눈금이 젖어있던 어머니 가슴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한여름 밤에서 돌아와 「우메 왜 이렇게 덥다나」 웃음을 풀 어체치고

후 물은 머리 수건으로 땀을 닦으니 젖가슴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자식 걱정에 움츠러들고 세상풍파에 겪 어, 무너지고 넉넉한 사랑도 슬픔도 이 밤 어머니라면 누구에게나 물어왔 을 분단의 강물에 휩쓸려가고

추그렁머리 젖무덤만 두개 달랑 있었 습니

다 오십 고개길을 힘겹게 넘고있는 어머니 젖가슴을 보며

나야 조국의 역사를 보았습니

## 낙서 시대의식 반영하는 대중여론

어떤 가정집의 청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화장실을 살펴보는 것이 있다. 즉 화장실은 청결도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우습지 않다. 그 이유는 사상부정 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일복된 화장실의 낙서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 학내 상황, 학생대중의 심리 상태를 총체적 대중여론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약 3기로 전개 되어 왔던 낙서의 배경을 살펴 보면 우선 제 1기는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전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화장실 낙

서와 가장 부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화장실의 사상 부정! 그것들을 자는 우습게 넘겨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습지 않다. 그 이유는 사상부정 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일복된 화장실의 낙서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 학내 상황, 학생대중의 심리 상태를 총체적 대중여론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약 3기로 전개 되어 왔던 낙서의 배경을 살펴 보면 우선 제 1기는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전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화장실 낙

서와 가장 부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화장실의 사상 부정! 그것들을 자는 우습게 넘겨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습지 않다. 그 이유는 사상부정 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일복된 화장실의 낙서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 학내 상황, 학생대중의 심리 상태를 총체적 대중여론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약 3기로 전개 되어 왔던 낙서의 배경을 살펴 보면 우선 제 1기는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전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화장실 낙



서의 핵심은 인생관과 철학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민중관 대외인으로서의 시대적 응대결하여 대학내 좌경세력과 당히 맞설 때!』

그렇다면 왜 3기에 해당하는 현재의 낙서는 엄청난 (!) 내용 체적인 사상은 평이하기 보다는 지극히 감성적 민중관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었다.

제 2기는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1987년 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낙서의 특징은 치열한 사상투쟁에 있다. 특히 동국대 학생 운동대의 직선적 정취 투쟁과 체인의 소집 투쟁 등 선의 대립은 매우 치열하였으

다... 학생수업...』

대 학생 의식 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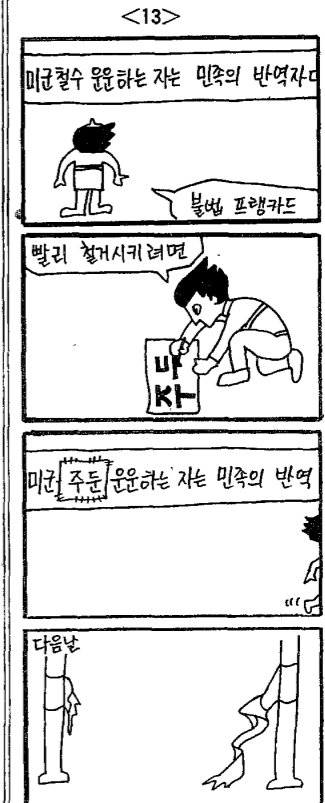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민중관 대외인으로서의 시대적 응대결하여 대학내 좌경세력과 당히 맞설 때!』

그렇다면 왜 3기에 해당하는 현재의 낙서는 엄청난 (!) 내용 체적인 사상은 평이하기 보다는 지극히 감성적 민중관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었다.

제 2기는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1987년 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낙서의 특징은 치열한 사상투쟁에 있다. 특히 동국대 학생 운동대의 직선적 정취 투쟁과 체인의 소집 투쟁 등 선의 대립은 매우 치열하였으

## 말쭙기!



말쭙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총학생회 역시 소수의 비판적 목소리가 화장실의 벽으로 숨어들지 않도록 비판적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실의 위토론 정치적 자유를 꾀었던 우리는 그 시기 낙서의 소중한 의미를 계속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기 재 <공과대 특목공학과>

### 全國 大學生 대상 東大文學賞 작품모집

東國의 문화적 傳統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韓國文學를 主導할 靑신한 英才를 발굴하기 爲해 靑국의 大學生을 대상으로한 本誌제정 「東大文學賞」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本誌「東大文學賞」이 이방의 精神文化를 주도해갈 가장 권위있는 大學生의 靑春문으로 靑학한것을 기대하며 靑학에 뜻을 둔 靑知人 靑여러분의 靑극적인 靑여를 바랍니다.

◇모집분야  
▲詩... 5편이상  
▲小說... 60枚이상 (2백자 원고지)  
▲評論... 60枚이상 ( " )

◇응모요령  
▲응모자격: 全國에 소재한 4년제대학 靑學生  
▲제출기간: 1989년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시 상: 상장및 상금  
시 부 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소설부 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평론부 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심사위원: 本誌에서 위촉하며 당선자발표와 함께 공고  
▲당선자발표: 1989년 10월 18일자 본지 紙上  
▲작품제출처: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작품결정: 「東大文學賞」 응모자이라 朱書해 주십시오  
※제출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989년 5월 31일

東大新聞社

## 메이리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로 알려진 이는 서대문 캠퍼스 각하러 불릴 정도의 권세를 누렸던 이기붕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승만과 함께 초창기 이 나라 정치판을 무정·부패의 장으로 일궈주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3·15 부정선거의 총지휘자 이기붕은 결국 「이승만·이기붕타도」를 외치는 민중의 거센 함성속에서 인가죽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로써 생을 마감한다. ▲박정희 정권에는 자유당파와 달리 수십년의 독재기간에 걸맞게 여러 명이 후계자로 거론됐다. 김홍철, 김형욱, 이우택, 차지철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박정희의 후광을 안는 한편 서로를 권력에서 밀고 당기는 정치적인 투쟁을 벌여 나갔다. 박정희 또한 자신의 장기집권유지를 위해

어느 특정인만을 지원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술수를 써왔다. 군부쿠데타의 가담자 김홍철은 정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김홍철 세력」에 대해 무력시위도 서슴치 않는 등 자신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을 차례로 숙청해 나갔으나 한때는 파벌싸움에 밀려 국의추방당하기도 했다. 이

권력 후계자들

외에도 김홍철같은 이는 박정희로부터 소외된 이후 태도를 바꿔 해외에서 「박정희정권」을 암살자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흘러 나온 여권내 차기 대권주자 사이의 파벌싸움이 여론에 부각되면서 세상 관심을 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당내 주류파를 형성하고있는 일명 T K(대 구·경북) 사단과 이종찬을

으로 한 비주류 (SK) 세력간에 일진일퇴가 거듭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양대 세력의 갈등의 표면화는 이색의 담내민주화발언에서 비롯되었다. 이색을 중심으로한 반 T K 인사들은 담내민주화를 명분으로 담권참여기회의 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자기 대권경쟁에서 T K의 세습적 승계를 차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T K 측은 이 발언을 구실로 유력한 경쟁상대인 이색과 반 T K 세력들의 활동반경을 위축시키고 이들을 당면에서 배제하고자 즉각 공격적대응포명한다. 역대 독재정권의 후계자의 말로는 그리 온건치 못하다. 그들은 철저히 민중을 위한다는 특색자의 하수인이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권의 싸움을 지켜보는 민중은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전개될까해서 자못 흥미와 호기다.

## 삼성의 재발전 ② - 자율경영

# 우리회사 김대리,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2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3 Main PCB Drawing	4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5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6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7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8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9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10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11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12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13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14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15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16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17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18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19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20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21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22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23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24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25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26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27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28 * HD TV 개발 DB 개발 16:00 * 메인 PCB Sampling * 메인 PCB Sampling

하루도 그저 쉬는 날 없이, 회사 안팎에서 평가하지 않을 꿈 꿔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회사 김대리. 하지 않아도 필일을 새롭게 개선했다고 나서서 선포하는 경우도 많아 김대리는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런 김대리를 향해 우리회사 사장님이라고 칭찬하는 임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례하게 성공이 꼭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가운데 개선이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일에 나설 때 그 조직은 살아있는 조직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역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나 만큼, 때로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실패를 오히려 격려합니다. 삼성은 사람을 믿습니다.

1957년, 국내최초로 공개채용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 이래로, 삼성은 '믿기지 않으면 뽑지 말고, 일단 뽑았으면 믿고 맡겨라'는 기업이념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시되며,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위임해오고 있는 삼성. 이곳에 50여년 삼성의 자율경영 풍토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